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 지역역사문화를 품은 특화콘텐츠 지역정체성을 깨우다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지역역사 문화포럼>

---

## 지역역사문화를 품은 특화콘텐츠 지역정체성을 깨우다

---

일시 : 2025. 8. 29.(금) 16:00~18:00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지역역사문화를 품은 특화콘텐츠  
지역정체성을 깨우다

## 목 차

◆ 포럼개요	4
◆ 발제 1	
의정부의 지명 유래와 지역정체성 확립의 방향	7
◆ 발제 2	
지역특화콘텐츠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2
◆ 토론	
① 역사문화자원의 지역적 적용과 콘텐츠 실현 가능성	43
② 지역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전략	46
③ 문화자원 콘텐츠화와 지역정체성 실현의 현실적 접근	52
④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과 쟁점	56

## 포럼 개요

### 추진개요

- 행사명 :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 일시 : 2025.8.29.(금) 16:00~18:0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2층 국제회의장
- 참석인원 : 100여 명(발제자 2명, 토론자 4명, 사회자 1명 등)
- 포럼주제 : 지역역사문화를 품은 특화콘텐츠, 지역정체성을 깨우다.
  - 1부 지역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 및 특화콘텐츠 활성화 필요성
  - 2부 지역문화 콘텐츠화의 실천과 담론 확장

### 프로그램

구분	시간	소요	행사일정	내용	비고
1부	16:00~16:15	15'	개회식	◆ 개회 및 내빈소개, 인사말씀	사회자
	16:15~16:55	40'	발제	◆ 발제 1 의정부의 지명 유래와 지역정체성 확립의 방향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발제 2 지역특화콘텐츠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고대화 (코담미디어 회장)	
	16:55~17:00	5'	자리정돈	◆ 토론좌석 배치 등	
2부	17:00~17:05	5'	참여자 소개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등	사회자
	17:10~17:50	40'	토론	◆ 토론 ① 역사문화자원의 지역적 적용과 콘텐츠 실현 가능성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② 지역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전략 송낙길 (경민대학교 교수) ③ 문화자원 콘텐츠화와 지역정체성 실현의 현실적 접근 유건식 (前)KBS공영미디어연구소장) ④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과 쟁점 안이수 (신한대학교 교수)	좌장
	17:50~18:00	10'	폐회	◆ 폐회 및 단체사진	사회자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지역역사문화를 품은 특화콘텐츠  
지역정체성을 깨우다

### 발제 1

## 의정부의 지명 유래와 지역정체성 확립의 방향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발제 2

## 지역특화콘텐츠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고대화 (코탐미디어 회장)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lt;지역역사 문화포럼&gt;

## 의정부의 지명 유래와 지역정체성 확립의 방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최 주 희

### 1. 머리말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행정중심지로서, 분단이 고착화되기 전에는 수도 서울에서 강원, 함경도로 통하는 경원선 철도노선의 경유지이자, 조선시대 경흥대로 구간에 속하였던 교통요지이다. 고려 현종대 군현제 개편 당시 '양주'라는 군현이 처음 성립된 이래 1963년 의정부시로 분리, 승격되기까지 의정부는 줄곧 양주의 관할지로서, 지역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의정부라는 행정지명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12년에 간행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으로, 양주군 둔야면 소속 15개리 중 하나[議政府里]로 표기되어 있다.<sup>1)</sup>

※ 본고는 2023년 의정부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의정부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정체성 고찰』이라는 학술대회의 발표문[조선시대~대한제국기 의정부둔전의 설치와 운영]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1)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의 경기도 양주군 둔야면에 조암동, 호동리, 어룡리, 목둔야리, 신촌리, 누원리, 의정부리, 동막동, 답석리, 양현리, 장수원리, 파발막리, 발이술리, 추동리, 장자동 15개리가 확인된다.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同名稱一覽』(1917)에는 시북면과 둔야면이 통합되어 시둔면으로 명칭이 바뀌고, 자일리, 금오리, 가릉리, 녹양리, 낙양리, 민락리, 호원리, 의정부리, 평내리, 호평리의 10개리로 편제된 내역이 기록되었다. 이때의 의정부리는 파발막리, 호동리, 시북면 직동리의 일부가 편입되어 행정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졌다.

이후 1914년 부군면통폐합 당시 의정부가 속해 있던 둔야면과 시북면이 '시둔면'으로 통합되고, 1922년 양주군청이 시둔면 의정부리로 이전됨으로써 '의정부리'는 일개 마을에서 일대의 행정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었다.<sup>2)</sup> 이어 1938년에는 시둔면이 다시 양주면으로 바뀌고 1942년 의정부리가 의정부읍으로 격상되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전쟁 이후 간행된 『大韓民國地域行政名鑑』(1959)에는 양주군에 1읍, 16면, 158리가 속해 있었으며, 군청이 소재한 의정부읍에는 의정부리, 자일리, 금오리, 가릉리, 녹양리, 낙양리, 민락리, 호원리, 용현리, 신곡리, 장암리 등 11개 리가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11개 리가 그대로 동[의정부동, 자일동, 금오동, 가릉동, 녹양동, 낙양동, 민락동, 호원동, 용현동, 신곡동, 장암동]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의정부는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재편과 경원선 개통, 군청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리에서 읍으로 행정적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1963년 이후로는 의정부시로 분리되고 1967년에는 경기도청 북부출장소(現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전신)를 유치함으로써, 경기북부의 도정을 책임지는 지자체로서 오늘날까지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한 가지 드는 의문은 '議政府里'에서 출발한 의정부시 명칭의 유래가 정종 2년(1400) 도평의사사를 개편해 만든 정1품 관서명이라는 점이다. 의정부는 의흥삼군부와 함께 경북궁 정문인 광화문 좌우에 배치되어 있었기에, 서울의 동북쪽 외곽에 뜬금없이 의정부라는 지명이 소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분명한 구전설화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은 의정부시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의정부라는 지명 유래에 얽힌 구전설화 중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太祖還宮說'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정부 지명 유래로 볼 수 있는 문헌자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2. 기존 의정부 지명유래의 문제점

의정부의 지명 유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구전설화로 소위 '태조환궁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태조가 함흥에서 환궁하던 길에 정사를 보았던 장소가 현재 의정부시 일대라는 설로서, 1937년 경기도(道知事 湯村辰二郎)에서 편찬한 『京畿地方の名勝史蹟』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서문에서, '본서는 경기도의 역사, 설화, 전설 등을 수록해 향토연구 또는 관광소개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기에 전문적인 역사서로 보기 어렵고, 의정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이 1페이지 남짓 짧막하게 소개한 정도에 불과해,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서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

2) 당시 양주군청을 의정부리로 옮긴 데에는 1910년 3월 경원선이 착공되고 이듬해인 1911년 10월 용산~의정부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경원선 철도 역사가 의정부리에 자리하게 된 요인이 컸다.

제 3대 태종이 이복동생 방식, 방번을 살해하고 큰 소란을 일으키자 태조가 不忠不義한 자와 함께 거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 함흥으로 갔다. 태종은 누차 태조를 맞이하는 사자를 보냈으나 태조는 使者를 살해하여 돌려보내지 않았다. 내지에서 「梨の飛礫で音沙汰なし(감감무소식이다)」라고 하는 속담과 같은 뜻으로 ①조선에서는 「威興の使」라고 하는 말이 그것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점차 노여움이 풀어져서 ②태종 2년(1402) 12월 지금의 議政府 지역까지 돌아왔다. 태종이 직접 맞이하러 와서 천막을 치고 연회를 열었다. 태조의 활이 손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신인 하륜이 태조가 필시 태종을 쏘아 죽일 것을 예상하고 쓸데 없는 큰 기둥 여러 개를 세워 벌여두었다. 태종은 그 기둥에 숨어서 다행히도 부왕이 쏜 화살을 피할 수 있었다. 이어 연회가 시작되자 태종은 현수의 의식에 친히 태조에게 잔을 권하려 하였으나, 그것도 역시 하륜이 생각을 바꿔 자신이 애써 왕을 대신하였다. 이때 태조는 다음과 같은 뜻을 내비쳤는데, 태종이 가까이 오면 일격하여 쓰러뜨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③태조는 마침내 경성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의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의 대궐터에 풍양궁을 건설하여 거주하였으나 후에 이 궁은 무너졌다. ④각 대신이 경성에서 지금의 의정부 지역까지 와서 정무를 의논하여 결재를 태조에게 올렸다 하여 의정부의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sup>3)</sup>

위의 기사에서 밑줄 친 부분이 태조환궁설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는 시사를 발간하면서 『京畿地方の名勝史蹟』에 실린 위의 내용에 근거해 의정부 지명 유래를 서술하였으며, 1997년에는 『議政府地名由來』를 편찬하면서 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소개하였다.<sup>4)</sup> 위의 인공문에서 태조환궁설에 첫번째 근거가 되는 ①‘함흥차사’는 조선후기 간찰에서 감감무소식이라는 말로 속담처럼 인용되기도 하고,<sup>5)</sup> 고사의 전말이 문집에 실려 후대에 전해지기도 하였는데, 태조와 막역한 사이였던 朴淳(?~1402년)이 함흥차사로 갔다가 병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sup>6)</sup> 함흥차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후대인들에게 ①과 같이 회자되었던 것은 사실인 듯하다.

문제는 왕자의 난으로 정사에 회의를 느낀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이 되어 동북면으로 외유를 떠났다가 환도하는 경로가 ②의 내용처럼 의정부 지역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당시 사료 상에 서울(京)은 태조 3년(1394)에 천도한 한양이 아닌 정종 즉위 후 환도한 松都[개성]로 보아야 한다. 1차 왕자의 난 이후 즉위한 정종은 재위 1년(1399) 2월 종척, 공신들과 의논 끝에 松京[개성]으로 환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월에 환도를 단행했다. 이성계도 이때 환도 행렬에 올랐는데, 신덕왕 후 강씨의 무덤인 정릉을 지나며 눈물을 흘리는 한편,<sup>7)</sup> 개성에 당도한 후에도 도성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밝을 때에는 밖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sup>8)</sup> 이후 태종이 한양 재

3) 京畿道纂, 『京畿地方の名勝史蹟』, 朝鮮地方行政學會 發行, 昭和 12년(1937), 193~194쪽.

4) 의정부시, 『議政府地名由來』, 광문인쇄사, 1997, 25쪽.

5) 송시열, 『宋子大全』 권87, 書, 與尹體元 丙寅十一月九日.

6) 이유원, 『林下筆記』 권17, 문헌지장편, 함흥차사, “太祖晩年有豊沛之戀 禪位世子 幸北關 不肯回變 朝廷 每請奉還而不得請 前後使者十輩 皆不得還 此所謂威興差使也(후략).” 그러나 상호군 박순은 당시 태종의 명으로 조사의의 난에 가담하지 않도록 도순문사와 수령을 효유하러 동북면에 파견되었다가 반란군에 피살되었다(『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8일(정해)). 함흥차사의 내용 자체도 후대에 왜곡된 방식으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3월 7일(무인).

8) 『정종실록』 권1, 정종 1년 3월 13일(갑신).

천도를 결정한 것은 재위 4년(1404) 10월 6일 무렵이었다.<sup>9)</sup> 따라서 한양으로 재천도 전까지 태종과 태상왕 이성계가 거처했던 곳은 한양 도성이 아닌 개성이었다.

태상왕이 된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6년 만에 자신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개경 수창궁에 아내와 자식을 잃고 돌아오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종이 2차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오른 후에는 불사를 위해 한양의 흥천사를 방문하였다가 금강산에 거둥하고,<sup>10)</sup> 안변부와 평주 온천에도 머무는 등 잦은 외유를 꾀하였고 태종은 안변에 창녕부원군 成石璘을 보내 回駕를 권유하는 한편,<sup>11)</sup> 평주 온천에 거둥했을 때에는 환관을 보내 태상왕을 문안하였다.<sup>12)</sup> 태종 1년(1401)에는 개경에서 보개산, 한양, 금강산, 안변, 평주(온천) 등으로 외유하였으며, 특히 당해 11월 26일부터 태종 2년(1402) 1월까지 소요산에 머물다가 2월 1일이 되어서야 개성에 돌아왔다.<sup>13)</sup> 6월부터는 소요산에 갔다가 회암사로 행차해 사찰을 중수하고 궁실을 지어 이곳에 한동안 이곳에 머물렀다.<sup>14)</sup>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태종은 다시 동북면으로 외유하였다가 태종의 청으로 개경으로 돌아왔다. ‘함흥차사’의 모티프가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런데 태종 2년(1402) 11월 이성계의 어가가 이동한 경로를 실록에서 추적해보면, 개성-김화-철령-함주-맹주-평양-금교-개성으로 파악된다. 태상왕 이성계는 태종 2년(1402) 11월 1일 태조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향하여 4일에는 김화현에 머물렀으며,<sup>15)</sup> 철령을 지나<sup>16)</sup> 함주로 향하자 태종이 무학을 보내 還駕하기를 청하게 했다.<sup>17)</sup> 이후 그는 서북면의 맹주로 향하였으며,<sup>18)</sup> 평양부로 이어하였다가<sup>19)</sup> 다시 금교역에서 태종의 마중을 받고 개성으로 돌아왔다.<sup>20)</sup>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태종 2년(1402) 12월에 태상왕 이성계가 환궁하는 길에 태종 이방원과 만난 곳은 의정부가 아니라 개성의 서북쪽 황해도 평산에 위치한 ‘금교역’이 되어야 한다. 태종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개성이기 때문에 어가의 도착지는 개성이 되어야 하며, 태상왕의 거처 역시 개성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유 후 이성계가 돌아올 곳도 한양이 아닌 개경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정종 2년(1400) 당시 세자였던 이방원의 청으로, 태상왕이 거처하는 태상궁을 ‘德壽宮’이라 이름하고 복식과 공상을 제공하는 ‘承寧府’를 두었다.<sup>21)</sup>

9)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10월 6일(갑술).

10)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윤3월 11일(경자).

11)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 10월 4일(기미).

12)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 4월 17일(을해).

13)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2월 1일(갑인).

14)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6월 9일(신유).

15)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4일(계미).

16)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8일(정해).

17)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9일(무자).

18)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18일(정유).

1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2일(신해).

2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8일(정사).

21)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1일(갑오).



그림 1. 1402년 태종이 태상왕을 마중한 금교역의 위치  
(출전: 『팔도지도』 「황해도」(奎4709-23))

이렇게 본다면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의 대궐터에 풍양궁을 건설하여 거주하였다는 서술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풍양궁의 경우 『세종실록』에서부터 그 명칭이 확인되는데, 세종대 상왕(태종)이 ‘풍양궁에 돌아갔다’고 하는 설명이 자주 나오고 세종이 직접 풍양궁에 문안한 것으로 보아 풍양궁에 머문 것은 태조 이성계가 아닌 세종에게 양위한 태종으로 보아야 한다.<sup>22)</sup>

마지막으로 ④각 대신이 경성에서 지금의 의정부 지역까지 와서 정무를 의논하여 결재를 태조에게 올렸다 하여 의정부의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는 설명 역시, 태조가 환궁하여 거처한 곳이 풍양궁이 아닌 데다가, 이것을 그대로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대신들이 현 의정부 지역이 아닌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에 있는 풍양궁에 가서 정무를 의논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현 의정부의 지명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명사신 방문 등으로 태상왕이 외교 의례에 일정 부분 역할 하기는 하지만, 내정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한 기사는 보이지 않으며, 논의가 있었다라도 왕이 머문 장소인 만큼 태상왕의 처소를 뜻하는 ‘태상전’이 아닌, 관료의 집무공간을 뜻하는 ‘의정부’라 칭했다는 것은 조선 시대 자연지명이 만들어지는 사례로 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sup>23)</sup>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정부 지명유

22) 이성계 역시 죽기 전 세종대 풍양궁에 행행한 적이 있지만(『세종실록』 권13, 세종 3년 9월 27일(정해)), 평소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3) 조선시대 왕실 구성원이 머물렀거나 왕실소유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보통 ‘궁촌’, ‘궁말’과 같은 자연 지명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래』(1997)에서는 『京畿地方の名勝史蹟』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의 대궐터에 풍양궁을 건설하여 거주했다는 내용을 빼고 ‘지금의 의정부 지방에 장기간 머물렀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놓았다.<sup>24)</sup>

물론 태종과 태상왕 이성계가 의정부 지역에서 회동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양 재천도 이후 먼저 한양에 당도한 태종이 개성을 떠난 태상왕 이성계를 ‘見州’에서 맞이하였는데, 태종이 숙소에 나아가 현수하였고, 다음날 태상왕이 노원역 뜰에 머무르자 태종이 술잔을 올리고 모시고 잤다는 기사가 확인된다.<sup>25)</sup>

견주라는 곳이 오늘날의 의정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양 재천도 당시 태종이 태상왕을 견주에서 맞이하는 이 기사야말로 태종과 태상왕의 만남, 화해의 역사적 근거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사료라 하겠다. 그러나 태종과 태상왕의 만남이 현 의정부 지역에서 성사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의정부라는 지명이 붙여진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연결’이라는 키워드에서 찾고, 조선시대 경흥대로와 경원선을 오간 사람들에 주목해, 태종-태상왕의 만남을 지역문화콘텐츠로 고도화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의정부라는 행정지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태종-태상왕의 만남과 무관한, 의정부라는 관서의 재정운영과 깊은 상관성을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도 1998년에 『議政府市 地名由來의 再檢討』를 간행하여 태조환궁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지역에 설치된 의정부둔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sup>26)</sup> 다만 아쉬운 점은, 의정부둔 관련 자료를 충실히 수집해 번역해 놓기는 했지만, 의정부둔의 설치와 의정부 지명 형성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의정부의 지명 유래에 실제 근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정부둔전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겠다.

### 3. 의정부 지명과 의정부둔과의 관계

#### 1) 조선시대 양주지역의 둔전 설치와 ‘議政府店’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군사방어를 위한 군량미 마련과 국가행정을 위한 경상비 확보를 위해 屯田을 경영했다. 이는 고려 말의 둔전제를 개편한 것으로, 선초부터 의정부 주도하에 둔전 설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로써 전국에 둔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군인·관노를 활용한 둔전 경작은 생산성에 한계가 있었을 뿐더러 일반 농민을 동원하는 경우에도 많은 반발이 야기되었다. 이에 둔전은 치폐를 반복하다가 세조대에 국둔전과 관둔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면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24) 의정부시, 앞의 책, 25쪽 참조.

25)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11월 6일(무술) ; 태종 5년 11월 7일(기해).

26)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의정부시 지명유래의 재검토』, 선일인쇄공사, 1998, 81~87쪽.

이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國屯田은 전국의 경작 가능한 미개간지에 설치되어 군량을 비축하거나 국용을 보충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官屯田은 지방 군현과 浦, 鎭 등 군사, 행정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지방관아 혹은 군사기구의 경비로 쓰였다.<sup>27)</sup>

조선시대 의정부에도 일찍이 둔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정부의 둔전 경영에 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반면 선초부터 양주목에 둔전을 설치해 운영한 사례는 다수 확인된다. 선초 의정부 일대의 둔전은 녹양평에 군사, 행정시설이 들어서면서 이를 운영할 경비 확보 차원에서 설치, 운영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지형으로 볼 때 둔야면과 시북면은 양주 읍치의 남쪽에 위치해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넓은 평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시북면은 녹양평을 포함한 면이며, 둔야면은 시북면의 남쪽에 인접한 면으로서, ‘둔전이 설치된 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일대에 둔전을 설치한 배경으로는 양주가 경기의 배후 군사기지로써 선초 군용 목장이 설치된 점을 들 수 있다.

태종 6년(1406) 경기도관찰사 전백영의 상언으로, 금주의 목장을 녹양의 교외로 옮기면서 녹양평에 목장이 운영되기 시작했다.<sup>28)</sup> 『세종실록지리지』 상에도 양주는 “땅이 기름져 개간한 토지가 15,190결에 달하며, 여섯 개의 역[청파·노원·영서·평구·구곡·쌍수]과 두 곳의 목장[살곶이·녹양평]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sup>29)</sup> 특히 녹양평은 읍치의 남쪽에 위치해 남북으로 12리에 달하는 들판으로, 중군과 좌군의 말을 함께 놓아 먹인다고 하였다. 경기 방어를 위한 군용 목장으로 선초부터 녹양평이 활용된 것이다. 세종대에는 이를 ‘甲士場’이라고 했으나, 범의 피해가 많아 성종대 이전에 이미 목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sup>30)</sup> 녹양 목장이 설립될 당시에는 많은 수의 말을 길렀으나, 도봉산과 수락산에 서식하는 범들에게 자주 공격을 당하자 전곳이 목장으로 말을 옮겨 기르게 되었고, 이로써 녹양평의 목장 운영이 폐지된 것이다.<sup>31)</sup> 이후 목장이 폐지된 곳에 민간의 농지, 제택 개발과 정부관서의 둔전 개발이 확대되었다. 아래 기사를 살펴보자.

사헌부가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大典續錄』을 상고하건대, 녹양은 곧 강무장이니, 즉 옛날의 원유입니다. 요사이 간사한 백성이 침입하여 개간한 것이 많고 혹은 스스로 점유하여 집을 지은 자도 있어서 기사년에 병조가 옛날 규칙을 들어 거주하는 자와 개간한 자를 금단하였고, 그 고을의 관리로서 규감하지 못한 자도 또한 다스려 죄준 지 겨우 6~7년인데, 지금 몰래 거주하고 몰래 개간한 자가 전일의 배나 됩니다. [중략] 병조가 초계한 바를 보면, 거의 모두가 조관·종척의 하례와 반인입니다. 양주 관아에서도 사사로이 둔전을 만들고 종척·거실들도 제택을 지었으니, 이는 의지하고 믿는 곳이 있어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소위요, 가난한 백성으로서 생업을 잃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sup>32)</sup>

27) 이재룡, 1965, 「조선초기 둔전고」, 『역사학보』 29, 118~120쪽 ; 이경식, 1978, 「조선초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 『한국사연구』 21·22, 117~118쪽.

28)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7일(정묘).

29) 『세종실록지리지』 권148, 경기 양주도호부.

30) 『성종실록』 권107, 성종 10년 8월 22일(을사).

31) 『연산군일기』 권55, 연산 10년 8월 26일(계미).

32)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13일(무술).

위의 기사는 중종 10년(1515) 사헌부가 녹양평에 백성의 불법적인 개간으로 강무장이 침탈당하는 문제를 논핵한 기사이다. 강무장이 침탈당하게 된 배경에는 연산군대 도성 주변의 사방 100리를 국왕의 사냥터로 지정해 금표를 설치하고 민가를 없애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한 조치가 있었다.<sup>33)</sup> 연산군대 강무장을 무리하게 확대 운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강무장을 침탈해 농지를 개간하고 가옥을 지어 살던 자들 역시 가난한 농민들로서 생계를 위해 강무장을 침범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조정 관료 혹은 종실 소속 하례와 반인들로서, 중종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논핵에도 이들의 불법적인 토지개간과 제택 점유를 전면 금단하지 않았다.

중종대 이후 강무장을 농지로 개간하거나 가옥을 짓는 이들이 늘어나고 양주 관아에서도 관둔전을 경영하면서 녹양평 일대의 개발이 확대되었다. 중종 32년(1537) 무렵에는 녹양평에서 강무가 시행되지 않아 이 일대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sup>34)</sup> 결국 녹양평 일대의 군사적 기능 역시 중종대 강무의 중단으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녹양평 일대는 녹양역이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민전과 관둔전이 경작되는 농촌마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만, 당시 양주목에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대로 부, 대도호부, 목에 허용된 관둔전 20결 외에 별도로 둔전을 추가로 확보해 운영했던 듯하다. 다만, 조선전기까지 녹양 일대의 둔전 경영이 그다지 활발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조 3년(1625) 무렵 비변사에서는, 녹양평의 갑사장(甲士場)이 공가(公家)가 소유한 공한지로 토지가 비옥해 광해군대 궁가와 간민들이 불법 점유해 농사를 지어 먹고 있으므로 모두 둔전으로 삼아 산성의 양식을 비축해야 하는 의견을 아뢰었다.<sup>35)</sup> 조선전기 국용 목장으로 쓰이던 갑사장이 농지와 민가의 유입으로 인조대까지도 둔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6)</sup>

한편 녹양평은 선초부터 국왕과 왕세자가 매사냥을 구경하거나,<sup>37)</sup> 국왕이 철원의 강무장에서 사냥하고 환궁할 때 머무는 중간 휴식지로 활용되었으며,<sup>38)</sup> 역원이 설치되어 파발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의정부 일대가 조선시대 서울 동북부 행정 교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녹양역이 설치되면서부터였다. 녹양역은 태종대부터 그 실체가 확인되는데 태종 15년(1415) 병조에서 각 역의 리수를 계산한 계목을 올릴 때에도 창덕궁 돈화문에서 광시원, 광시원에서 녹양역까지의 里數와 步數가 보고되었다.<sup>39)</sup> 녹양역은 포천 안기역과 영평의 양문역에 이어 강원도 은계역에 이르는 9개 역으로 묶여 은계도찰방에 의해 관리되었으며,<sup>40)</sup> 18세기에는 평구역 소속으로 운영되었다. 역에는 역리와 이노가 있었는데, 『여지도서』에 따르면 18세기 녹양역에는 이노가 44명, 비 28명이 속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녹양역의 운영을 위해 『경국대전』 상에 명시된 것처럼 역둔전 12결이 경작되었을 것

33) 『연산군일기』 권55, 연산 10년 8월 7일(갑자).

34)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4월 5일(계축).

35) 『승정원일기』 7책, 인조 3년 7월 21일(정묘).

36) 조선 후기 누원 일대에 북한산성 소속 둔전으로 갑사둔이 설치된 것도 녹양에 설치된 갑사장의 명칭에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7)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1월 13일(병자).

38)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27일(신미).

39)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2월 14일(신축).

40) 『성종실록』 권10, 성종 2년 4월 11일(계축). 세종 6년(1424) 녹양역, 안기역, 양문역을 평구도찰방이 별도 관리하게 하였다가, 이때에 다시 은계의 찰방이 하나로 관리하도록 했다.

으로 생각되지만, 자료가 분명치 않다.

요컨대, 한양 천도 이후 중앙정부는 양주의 읍치를 북동쪽으로 이전하고 면리를 개편해 양주목으로 편제하였으며, 이 일대에 군사, 행정시설을 배치해 한양 도성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외곽방어기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해갔다. 이에 선초부터 양주의 녹양평 일대에 목장, 역원 등이 설치, 운영되었으나 성종대 이전 목장이 폐지된 이후로는 토지개간과 제택 개발이 확대되었다. 녹양역 역시 연산군대 강무장 확대로 기능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으나, 곧 회복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평구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역참으로 기능하였다.<sup>41)</sup> 이러한 양주의 행정 변화 속에 양주목 소속 관둔전과 녹양역 소속 역둔전이 녹양평 일대에 조성되어 경작되었다.

그러면 의정부 소속 둔전은 언제부터 설치되었을까? 현존하는 조선시대 문헌자료 속에서 의정부 둔전에 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며, 19세기 이후 재정자료에서 일부 확인될 뿐이다. 조선후기 들어 비변사가 국정운영의 주요 회의체로 운영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국가 최고위 관료들이 속한 정1품 아문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찍부터 둔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적어도 녹양평 일대에 의정부라는 지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둔전이 경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한 단서로 이전에는 소개된 적이 없는 『노상추일기』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날 행장을 꾸려야 하는데 빛을 얻을 길이 없어서 이성수령인 척형 정달신에게 70금을 얻어서 행장을 꾸리고, 오후에 이성 수령과 함께 북쪽으로 출발하였다. 친지들이 와서 모여 전별하였다. 병조에서 마패와 초료장을 받고 본조의 역마를 타고 흥인문으로 나아가니, 바로 오시~미시(오전 11시~오후 3시)였다. 이성수령이 먼저 가고 나도 뒤따라갔는데, 역마라는 것은 백 번 채찍질에 한 걸음을 간다. 나는 남자종이 없어서 이성 수령의 남자종 명재로 하여금 개인 짐말[卜馬]을 끌게 하였다. 30리를 가서 누원점에 도착하니, 이성 수령이 쉬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 수령과 동행하니 먼 길을 떠나는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다. 10리를 가서 議政部店에 도착하여 이성 수령은 서오랑점으로 가고, 나는 역을 찾아 10리를 가서 녹양역에 묵었다. 지나는 길의 수해로 손상된 벼들이 보기에 매우 경악스러웠다.<sup>42)</sup>

위의 기사는 노상추가 서울에서 행장을 꾸려 흥인문-누원점-의정부점-녹양역으로 이동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노상추는 이때 개인 말이 아닌 역마를 빌려 타고 남자 종도 이성 수령의 종을 빌려 데리고 가면서 역마가 백번 채찍질 해야 한 걸음 갈 정도로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불평했다. 관원에게 빌려주는 역마의 상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사로, 노상추가 서오랑점으로 가지고 않고 녹양역에 묵은 것 역시 말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노상추가 녹양역에 가기 전에 경유한 지역을 보면 누원점과 의정부점으로 확인된다. 이때의 의정부는 ‘議政府’가 아닌 ‘議政部’로 쓰여있기는 하지만, 府와 部 모두 행정단위에 쓰이는 한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당시

41)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광해군 4년 2월 15일(경진).

42)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6월 28일(갑자).

기사를 작성한 시점은 정조 11년(1787)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18세기 후반에 의정부라는 명칭이 이 일대 지명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정부점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림 2>에서 경흥대로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누원점-서오랑점-축석령길로 들어서야 한다. 이성 수령은 누원점에서 노상추를 기다리다가 함께 이동하여 의정부점에 도착했고 다시 서오랑점으로 출발했는데 노상추는 녹양역으로 행선지를 달리했다. 따라서 의정부점은 누원점과 녹양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오랑점으로 향하는 길과 달라야 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위의 그림에서 비석거리와 서오랑점으로 갈라지기 전, ○로 표시된 곳 일대에 의정부점이 자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정부점이 위치했다는 것은, 이 일대 의정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토지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의정부점 인근에 둔전이 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상추가 의정부점에서 녹양역을 지나는 길에 수해로 들판의 벼들이 보기에 경악스럽다고 한 점에서도, 둔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일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의정부 둔전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가운데, 조선전기부터 녹양평 일대 관둔전과 역둔전이 설치되어 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노상추일기』에서 확인되는 ‘의정부점’이라는 명칭을 통해 적어도 적어도 18세기 후반에는 이 일대 의정부 소속 둔전이 경작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의정부가 이 일대 자연촌을 대표하는 행정지명으로 쓰이지는 못했다. 『노상추일기』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호구총수』(1789)에는 동시북곡면[일패리]과 남둔야면[일패리, 이패리, 삼패리]에는 의정부리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정부가 행정지명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둔전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거주지가 이곳에 형성되고 이것이 주민들의 기억 속에 하나의 지역성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상추가 언급한 ‘의정부점’은 공식적인 행정지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선후기 둔전민들의 집단 촌락이 둔전 인근에 형성되면서 이 일대를 지나는 행려객들에게 하나의 자연지명으로 회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의정부점의 위치(○표시 지역, 출처 : 『동여도』)

그러면 의정부 일대 둔전은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조선후기~대한제국기에 작성된 재정자료를 통해 의정부시 일대에서 의정부둔이 어떻게 경작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의정부둔의 운영과 소멸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의 제반 사무를 다스리며, 국방을 경략하는 최고위 행정 기관이다. 임진왜란 당시 임시회의체인 비변사가 설치되었다가 조선후기 국정에 관한 제반 시책을 논의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고종 즉위 후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변사를 의정부 합설기구로 재편하면서 의정부는 선초의 위상을 되찾았다.<sup>43)</sup> 고종대 의정부는 삼정승 각 1인, 좌·우찬성 각 1인, 좌·우참찬 각 1인, 사인 2인, 검상 1인, 공사관 11인, 사록 1인으로 구성된 관서였다.<sup>44)</sup> 이밖에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녹사 19인과 서리 26인, 약방 1인, 권두 15명, 사령 26명, 방직 9명, 군사 10명이 속해 있었다(총 128인).

의정부의 역할은 인사와 관련된 枚卜·薦選, 재정과 관련된 田賦·糶糴(환곡)·貢市(공인·시전상인 관리)·재용, 제향·의례와 관련된 典禮, 관료행정에 관련된 坐起·계차, 외교와 관련된 사대·교린·開市, 군사방어에 관련된 軍務·邊政(표류인 관리), 형정에 관련된 형옥·법금, 진휼에 관련된 恤卹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sup>45)</sup> 이처럼 국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띤 의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관서 경비를 마련했으며, 그 액수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전 25,399냥, 쌀 417석, 잡곡 19석, 무명 8동 45필에 달했다. 이는 선혜청에서 급대를 책임지는 종친부[동전 30,000냥, 미 609석 6두, 무명 15동 24필, 포 10동]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수입에 해당하는 응입 항목을 살펴보면, 호조의 세삼가, 납약가로 의정부에 바치는 동전이 5,267냥으로 가장 많고 급대로 지원받는 동전량도 상당했다. 주지하다시피 급대는 균역법 시행 이후 군아문에서 거두는 군포 수를 절반으로 줄인 대신 부족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의정부는 재정아문으로부터 2,522냥 가량의 급대를 지원받았다. 한편 약재값과 인삼세, 어세 등을 동전가로 받았으며 의정부에서 상변해야 하는 서리, 군인 등의 역가도 동전으로 수취했다. 지출에 해당하는 용하는 응입액에 맞추어 액수를 산정해 놓았다. 원역의 매달 급료와 의복비, 식비, 봄·가을 행차 시여비 등에 가장 많은 비용[14,054냥]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신, 당상, 사록에게 지급하는 삼가로 5,880냥이 쓰였다.

조선전기에는 의정부 소속 관리에게 현물로 지급되던 삼과 약재를 동전으로 대신 지급하고, 의정부에 입번하는 군인, 서리 역시 고립가만 상납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43) 홍순민, 2015, 「고종 초년 합설 의정부의 직무와 위상」, 『역사와 현실』 95 ; 이경동, 2015, 「합설 의정부의 내부 구조와 공사색(公事色)의 위상」, 『역사와 현실』 95.

44) 『대전회통』 권1 이전, 경관직 의정부.

45) 『육전조례』 권1 이전, 의정부.

〈표 1〉 19세기 중반 의정부의 세입-세출 구조(\*출전: 『육전조례』 권1 이전, 의정부)

음 입		음 입	
稅蓼價·臘藥價	5,267냥	제용감미 이자	52석
혜민서상정전	40냥	<b>계</b>	<b>417석</b>
급대	392냥	해주, 강령둔토세(잡곡)	19석
녹사급대	84냥	<b>계</b>	<b>19석</b>
서리급대	46냥	병조약재가무명	1동 40필
별급대	2,000냥	해국급대무명	4동 5필
혜민서삼가	691냥	별급대무명	3동
草材價	288냥	<b>계</b>	<b>8동 45필</b>
守令試暇差使員古風債	444냥	<b>용하</b>	
各司間朔古風債	188냥	唐材草材價	5,880냥
八道監兵水營·松營·沁營收納年例藥債	4,800냥	奇別書吏·掌務書吏都目等第科榜試券等雇一年例下	105냥
부안 변산 산세, 어세	1,600냥	약방 이송	2,000냥
강령 어세	200냥	不虞備移送	595냥
수안 약재가	100냥	호조이송세삼가, 현목대전	255냥
이천등읍 서리번전	254냥	각항예하	1,722냥
전라좌수영 휴번목대전	3,174냥	留置傳掌條	288냥
嶺營射軍木代錢	500냥	원역삭하·의자·세찬·춘추행행시 응용전	14,054냥
安營例納	300냥	매년 유치전	500냥
包蓼別將稅錢	5,000냥	<b>계</b>	<b>25,399냥</b>
<b>양주둔토세전</b>	30냥	약방이송미	62석
<b>계</b>	<b>25,399냥</b>	원역삭하미	355석
<b>혜민서 고품미</b>	47석	예하잡곡	19석
<b>당재가미</b>	15석	<b>계</b>	<b>417석</b>
書吏朔下不足米	10석	원역의 의용으로 쓸 무명	8동 45필
<b>납미</b>	293석	<b>계</b>	<b>8동 45필</b>

그런데 위의 표에서 의정부의 수입 가운데 둔세로 거두는 항목이 확인된다. 양주의 둔토세전 30냥과 해주, 강령둔토세 19석이 그것이다. 양주에서는 동전으로, 해주, 강령에서는 잡곡으로 둔세를 거둬 의정부의 경비로 활용하고 있었다.<sup>46)</sup>

46) 『승정원일기』에는 철종 8년(1857) 전라우도 암행어사 成彝鎬(1817~1895)의 건의로 부안군 소재 의정부둔토의 導掌을 없애고 부안을 수령이 수세하여 의정부에 바치도록 조치한 기사가 확인되는데(『승정원일기』2598책, 철종 8년 12월 28일(을해)). <표 1>에서는 부안 변산의 산세, 어세만 수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정부의 둔전 수입은 <표 1>로 봤을 때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둔전이 소재한 곳 역시 양주와 해주, 강령에 그친다. 의정부에 둔전이 적은 이유는 최고 회의체로서 호조와 팔도 감영, 병영에서 약재 진상을 대신해 바치는 동전과 균역청의 급대와 같이 관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1품아문으로 5상시에 들어가는 충훈부의 경우 둔세에서 거두는 동전만 3,559냥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정부의 재정운영에서 둔세 의존율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의정부에 속한 둔전 결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아래 <표 2>는 1808년에 작성된 『만기요람』상의 각아문 둔전 면세결을 정리한 것이다. 19세기 초반 군아문의 둔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균역청이 압도적인 규모로 둔전 결수를 많이 확보한 가운데, 훈련도감과 충훈부에서 그 다음으로 둔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808년 각 아문 둔전 면세결(\*출전 : 『만기요람』)

관서	둔전 결수	관서	둔전 결수
의정부	69결 96부 1속	봉상시	205결 32부 7속
종친부	792결 4부 3속	사옹원	258결 78부 4속
둔녕부	400결	사포서	2,009결 26부 3속
충훈부	1,414결 17부 9속	내의원	9결 34부 1속
기로서	1,561결 75부	상의원	74결 1부 5속
균역청	23,007결 44부 9속	내섬시	3결
훈련도감	3,330결 30부 1속	선공감	31결 64부 7속
금위영	18결 25부 3속	빙 고	16결 98부 5속
어영청	7결 86부 2속	장원서	111결 6부 9속
총융청	194결 74부 9속	전생서	204결 51부 7속
성균관	531결 10부 1속	사축서	51결 45부 7속
사학	39결 19부 1속	혜민서	3결 41부 6속
사복시	11,687결 7부	내농포	72결 24부 9속
계		계	46,104결 97부 9속

의정부의 경우는 당시 총 46,104결 97부가량의 둔전 총액 중 69결 96부 정도(0.15%)의 둔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양주군에 속한 의정부의 둔전 결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였다. 아래 <표 3>은 현존하는 『內藏院所管楊州郡議政府屯田畚調查定賭成冊』(奎20709)에 기록된 의정부 둔전 결수와 두락수, 도조액을 정리한 것이다. 광무 5년(1901) 양주군에 속한 의정부 둔전결수는 총 18결 78부 1속으로 순조 8년(1808) 69결 96부 1속으로 파악됐던 결수의 26% 수준이었다.

〈표 3〉 1901년 의정부둔의 운영양상

구분	토지 규모	토지 결수 및 지대액	비고
경작논 총 규모	45석 11두 5승락	租 164석 19두 5승	1석 15두락 舊陳
실제 경작논 규모 (환산 결수)	43석 16두 5승락 15결 23부 7속		
실제 경작밭 규모 (환산 결수)	54일 1식경 3결 54부 4속		
지대총액(도조)	-	租 177석 12두	15석 마름 비용
실지대총액(도조)	-	租 162석 12두	
산 세	-	雜木 20태(짐)	손언동(산지기)

주지하다시피 국공유지로서 정부관서에서 경비로 활용되었던 둔토·역토는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탁지아문에 이속되었다가 궁내부, 탁지부로 이관되었으며, 1899년부터는 고종황제의 직속 재정기구인 내장원으로 옮겨졌다.<sup>47)</sup> 위의 의정부둔 역시 처음에는 의정부에서 둔세를 수취하던 전답이었지만, 1898년 선희궁에 귀속되었다가 이듬해 내장원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위의 『內藏院所管楊州郡議政府屯田畝調查定賭成冊』(奎20709)은 1901년 당시 내장원에서 관리하는 양주군 소재 의정부둔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라 하겠다.

〈표 3〉을 살펴보면, 경작 둔전은 토지결수로 논과 밭을 합해 18결 78부 1속으로 확인되지만, 밭보다는 논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논에서 164석 19두 가량의 지대를, 밭에서는 12석 12두 정도를 도조로 수취했다. 이와 더불어 산지기인 손언동을 통해 山稅로 잡목 20짐을 바치게 했다. 이에 내장원에서 거두는 의정부둔의 도조액은 177석 12두 정도였으나, 도조를 관리하는 마름에게 15석을 급료로 지급하면서 실제 의정부둔에서 거둔 내장원 수입은 162석 12두 정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둔세 수취 규모는 20세기 초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 듯하다.

47) 이에 대해서는 박성준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박성준, 1998,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역둔토 경영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6).

1902년 양주군수 홍태윤이 내장원경에 보고한 의정부군의 도조 실수를 살펴보면(〈표 4〉 참조), 160석 12두, 잡목[柴] 20짐 정도였다.<sup>48)</sup>

〈표 4〉 1902년 양주군 내 역둔토의 지대액

둔토	도조액	역토	도조액
양향둔	租 38석 1두 8승, 錢 62냥, 粟 30두	연서역	租 45석 6두 2승
갑사둔	錢 1,387냥 6전	쌍수역	租 30석 4두 2승
총융둔	錢 631냥 6전 火粟稅錢 320냥	평구역	租 78석 1두 9승
총훈둔	租 311석 7두, 柴稅錢 17냥	벽제역	租 3석 17두
관둔	租 6석, 전 7냥 8전 5푼	녹양역	租 78석 13두 5승
의정부둔	租 160석 12두, 雜木 20짐	구곡역	租 34석 19두 4승 5홉
아차산	粟 10두	-	-
해등촌산	租 14두, 粟 15두	-	-
벌리산	粟 8두	-	-
계	租 507석 17두 5홉, 전 2,426냥 5푼, 잡목 20짐, 밤 33두		

당시 양주군에는 연서역·쌍수역·평구역·벽제역·녹양역·구곡역의 6곳 소속 역토와 갑사둔·의정부둔·양향둔·총융둔·총훈부둔·관둔전이 소재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수취하는 도조액은 총 507석 17두의 벼와 2,426냥의 동전, 잡목 20짐, 밤 33두 정도였다. 의정부군의 도조액은 양주군의 역둔토 도조액 중 벼의 비중만 놓고 봤을 때 31.6%에 달하는 양이었으며 총훈부둔에 비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한편 녹양역에서 보유한 역토는 군내 다른 역토에 다른 역들에 비해 도조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녹양역이 경기동북부 역원들 중에서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의정부 전체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9세기 재정자료를 통해 양주에 의정부둔이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갑오개혁 이후로도 둔전이 폐지되지 않고 내장원에서 도조로서 지대를 수취하고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대한제국기까지 의정부둔의 지대를 수취하는 주체는 의정부에서 선회공으로, 다시 내장원으로 바뀌었지만, 의정부둔을 경작하는 주민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의정부둔민들은 정부의 지대수취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拒納으로 대응하였다. 1902년 5월 경기봉세관 이태하가 내장원경에 올린 보고서에 따르면, 양주 의정부둔 도조의 태반이 수취되지 않은 것은 둔전민들 중 호강세력이 납세를 거부하며 바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거납을 주도한 인물들의 명단까지 조사해 보고했다.<sup>49)</sup>

48) 『경기도각군보고』 5, 광무 6년(1902) 11월 2일, 보고서 제11호 참조.

49) 『경기도각군보고』 4, 광무 6년(1902) 5월 19일, 보고 제19호 참조.

아래 <표 5>는 둔전 도조액을 바치지 않은 각호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 제시된 미납 각호는 앞서 <표 3>의 『內藏院所管楊州郡議政府屯田畚調查定賭成冊』(奎20709) 상에 이름이 기재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1901년 내장원에서 양주에 소재한 의정부둔을 전수조사하고 도조액을 일일이 확정해 성책해둔 것은 내장원에서 의정부둔의 도조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둔전민들이 도조 납부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 5> 1902년 의정부둔 도조 미납 각호

미납 명단	미납 도조액	비고
정천경	17석 10두	내장원소관양주군의회정부둔전담조사정도 성책(이하 성책) 수록
함계룡 · 이소용 · 배영석	9석 2두	-
한봉용	5석 16두	성책 수록
이용문	8석 16두	성책 수록
홍정봉	6두	성책 수록
지천실	15두	성책 수록
진인보	4석	성책 수록
홍오공	1석 8두	성책 수록
허학이	6두 5승	성책 수록
손숙안	3두	성책 수록
이정만	3두 5승	성책 수록

이들이 도조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1902년 5월 26일 이들이 양주군수 흥태윤에게 올린 소장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의정부둔민들은 자작농으로 척박한 토지를 ‘수백년에 걸쳐 상속, 매매를 통해 경작해오다가’ 무술년(1898) 선희궁에서 마름[숨퐁]을 보내 매결에 4석씩 도조를 받은 뒤 일부는 선희궁에 지대로 납부하고 일부는 양주군 결전으로 바치도록 했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 도조를 납부했는데, 뜻밖에 작년 가을에 봉세관이 상답은 2두락마다 6두씩, 중답은 4두씩, 하답은 2두씩 도조를 납부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結錢도 함께 바치게 하므로 과세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도조와 결세를 한꺼번에 거두면 전답의 주인인 둔전민은 토지를 버리는 것만 같지 않아 경작이 폐해져 진황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근의 갑사둔토는 매 두락에 2두씩을 동전으로 환산해 도조로 바치는데, 같은 국유지[公土]에서 바치는 도조와 세가 다를 수 없으므로 갑사둔의 예대로 해달라는 호소였다. 그러나 내장원에서는 토지의 비옥도를 따져 도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갑사둔과 비교해 도조액을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sup>50)</sup>

50) 『경기도각군보고』 5, 광무 6년(1902) 5월 26일. 보고서 2호.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술년에 선희궁에서 의정부둔토에 도조를 받은 대목이다. 의정부 소속 둔전의 도조를 당시 선희궁에서 수취하게 된 배경에는 고종 7년(1870) 선희궁이 육상궁 내 별묘에 합봉되고 선희궁 소속 토지도 호조로 귀속되었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선희궁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의 제사궁으로, 영조 40년(1764) 영빈 이씨 사망 당시에는 의열묘였다가 정조 12년(1788) 선희궁으로 추증되었다. 그런데 1897년 선희궁을 다시 이 건해 종전대로 회복시켰고, 선희궁 토지도 다시 지급하도록 했으나 갑오승총 이후 국방전을 혁파했기 때문에 선희궁 소속 둔토를 다시 지급하기 위해 의정부에 속했던 둔전의 도조를 이관해준 것이다. 이때 당시 선희궁에 이관된 토지는 경기 14군을 비롯해 전국 8도에 산재해 있었다.<sup>51)</sup> 이 토지들이 1901년 다시 내장원으로 환속되면서 도조액을 달리 적용하자 위와 같은 조세저항이 발생한 것이다. 의정부둔민들은 내장원에서 적용한 도조액과 결세 징수에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면 1901년 당시 내장원에 귀속된 의정부둔전이 어느 곳에 위치했으며, 둔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조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902년 둔전민들이 거납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희궁에서 관리하던 의정부둔을 내장원에서 환수 조치하면서 <그림 3>과 같이 성책을 작성하고 도조액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내장원에서는 의정부둔을 상·중·하답으로 구분하고 토지마다 작인들에게 부과할 도조액을 명시해 놓았다.

토지 등급	답	도조액	둔전민
雁字 中田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二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三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四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五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六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七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八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一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二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三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四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五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六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七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八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九十九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雁字 中田一百日耕	八畝	結五十四	韓奉用

그림 3. 『내장원소관양주군의정부둔전답조사정도성책』(奎20709)

<부표 1>은 이를 전수 목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 의정부둔전을 경작한 둔민들의 실체와 이들에게 부여된 도조액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둔이 실제 어디에 소재했는지도 이 표를 통해서

51) 박성준, 앞의 논문, 166~170쪽 참조.

확인할 수 있는데, 의정부(점) 이외에 독주천<sup>52)</sup>, 전좌동<sup>53)</sup>, 호곡전평, 직곡, 빙고현, 회룡동 등에 의 정부둔이 경작되고 있었다. 이를 <그림 4>에서 상에서 살펴보면, 의정부점을 비롯해 현재의 의정부 시의 권역에 둔전이 집중적으로 경작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대한제국기 경기도각군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의정부둔민들의 거납 호소는 1904년까지 이어졌다. 내장원에서는 둔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역둔토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일체 징수하도록 했으나,<sup>54)</sup> 1904년에는 둔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감사둔과 같이 代錢 10냥씩으로 도조를 변경해주었다.<sup>55)</sup>

그러나 내장원의 일방적인 징수보다 더 큰 문제가 1904년에 발생했다. 1904년 10월 26일, 양주군수 홍태윤의 보고를 접한 경기도관찰사 이근교가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올린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러일전쟁기 의 정부점과 인근 둔전 일대가 병참기지로 활용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러일전쟁기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기지를 조성하고 러시아와의 육지전을 위해 북상하면서 의정부점을 경유해간 것이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병사를 주둔시키기 위해 議政府店舖를 빌려 쓰고자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고 판단해 10월 초 의정부점 부근에 있는 민전에 터를 닦아 장교가 머물 사무실과 군수 물자를 보관할 庫舍, 마구간을 새로 건축하고자 양주군수 홍태윤에게 이를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양주군수는 외국인이 내국 영토에 표목을 세워 건물을 짓는 것은 조약장정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막아섰으나, 일본군은 군사업무에 관계되는 일이고, 군대를 철수할 때 건물도 마땅히 철거할 것이고 사용한 토지는 賸錢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인 공장을 데려다 빠르게 건물을 짓고자 하기에 부득이 일본병사가 점유하는 토지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보고한다고 알려졌다.<sup>56)</sup> 여기서 홍태윤이 언급한 조약장정은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군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교환된 韓日議定書(1904. 2)를 의미한다. 한일의정서에 따라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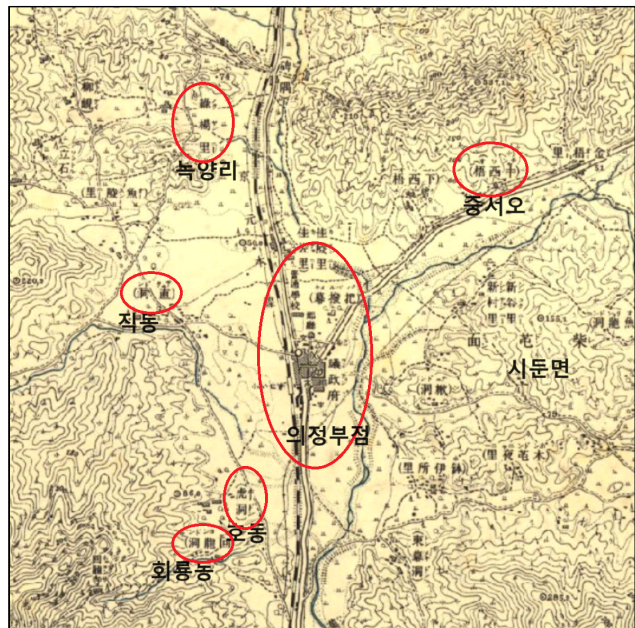


그림 4. 의정부점과 의정부의 주요 행정지명

52) 독주천은 그림 2(『동여도』)에서 ‘獨豆川’과 음가가 비슷하여, 아마도 같은 장소의 한자를 바꿔 쓴 것이 아닌가 한다.  
 53) 전좌동은 현재 전좌마을에 해당하는 자연지명으로, 행정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룡사 입구 호원동 일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인다.  
 54) 『경기도각군보고』 광무 7년(1903) 5월 30일, 보고서 제 7호.  
 55) 『경기도각군보고』 광무 8년(1904) 11월 일 소장 및 11월 15일 지령.  
 56) 『경기도래거안』 3, 광무 8년(1904) 10월 26일, 보고서 제36호.

에서는 일본군에 군사용 토지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정부점사는 물론 인근 둔전도 빌려쓰도록 허용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외부대신 이하영 역시 군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금단하기 어려우나 둔전에 불법 난입한 자들은 해관에 즉시 알려 상황을 심문하도록 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로 1904년 당시 의정부둔전과 오참판덕 산소 인근에 일본군 사무실 6칸, 고사 16칸, 채전, 마구간 22칸이 조성되었다. 특히 고사 16칸과 債錢은 〈부표 1〉의 첫줄에 확인되는 의정부둔민 한봉용의 토지를 차대한 것이었다. 러일전쟁 이후 의정부둔은 다른 역둔토들과 마찬가지로 통감부로 귀속되었으며, 합일병합 후로는 1920년에 반포된 「역둔토특별처분령」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불하되는 역사적인 경로를 밟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조선시대 의정부 일대는 양주목에 소재한 경기북부의 교통요지로서 녹양역과 녹양목장이 운영될 만큼, 군사·행정면에서도 위상이 높았던 지역이다. 녹양역을 유지하기 위한 역둔전과 양주목을 운영하기 위한 관둔전이 설치된 것은 법전과 관찬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이지만, 조선전기 이래 의정부 둔전이 설치된 정황은 사료 상에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19세기 법전류와 재정자료에서 의정부 관할 둔전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다른 관서의 둔전 규모에 비하면 그 액수가 크지 않고 둔세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의정부라는 명칭이 19세기 이후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 된 데에는 일제시기 경원선 역사가 놓이는 자리 인근에 조선후기 의정부점이 자리함으로써, 이 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랜 기간 지명이 남아있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농민들 역시 대대로 의정부 둔토를 경작함에 따라 이곳을 자신들의 생활 터전으로 인식해옴으로써 의정부 둔토를 지역을 대표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사용해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의정부 둔전을 설치한 것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지만, 의정부라는 지명을 지역 정체성으로 이어온 것은 결국 의정부 둔전을 삶의 기반으로 인식했던 지역민들이었다고 할 것이다.

#### 4. 맺음말 : 의정부 지역정체성,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까지 의정부 지명과 관련된 논의의 문제점을 ‘태조환궁설’을 중심으로 짚어보고, 의정부 지명 유래의 실증적 근거로 생각되는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의정부둔 운영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태조환궁설이 기대고 있는 함흥차사 설화 자체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후기 함흥차사에 대한 민담이 전해져왔고, 일제시대 이를 바탕으로 ‘태조환궁설’이 민간에 구전되었다. 이를 1937년에 경기도에서 『京畿地方の名勝史蹟』으로 편찬하면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맥락이 왜곡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까지 인용되어오고 있다. 1997년 의정부문화원에서 여러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지명유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의정부 지명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정부둔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에서는 여전히 ‘태조환궁설’이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의정부시는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의정부 지역정체성을 '태조와 태종의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태조와 태종 의정부 행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자체가 역사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의정부와 같이 해방 이후 행정구역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군의 경우 지명에서부터 그 연원을 천착해야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sup>57)</sup> 그간 의정부 지명유래로 언급되어 온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태조-태종의 고사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명을 가지고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언급하려면 의정부군과 연관지어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의정부와 같이 둔전이 오랜 기간 경작되어 지명으로 남은 형태는 경기도 안양시의 충훈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충훈부는 오랜 기간 자연지명으로 구전되어 왔으며, 최근 행정동명으로 재지정되었다.<sup>58)</sup> 반면, 의 정부는 일제시대 경원선 역사가 들어서고, 양주군청이 이전하였던 데다가 해방 이후 경기도청 북부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교통, 행정중심지로의 위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의정부리라는 지명이 시명으로까지 격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 지명 유래가 의정부 둔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하되,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의정부시가 과거 조선 개창을 이끈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의 활동 무대였음을 드러내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종 이방원이 재위 5년(1405)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뒤이어 출발한 태조 이성계를 '견주'에서 맞이하고 숙소에서 헌수했다는 기사가 확인되므로, 이 기사를 근거로 <태조와 태종 의정부 행차>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의 태조환궁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1·2차 왕자의 난으로 잦은 외유를 감행했던 태조 이성계를 태종 이방원이 태상왕으로서 한결같이 예우하였음을 일관된 서사로 만들어내고, 1405년 행차의 의미를, '만남과 화해'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회룡사와 (양주)회암사가 모두 태상왕 이성계가 조선 개창을 준비하거나 개국 이후 유숙했던 곳임을 환기시켜, 태조 이성계의 땅으로서 의정부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을 듯하다.

의정부 지역정체성으로 또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연결'이다. 이는 사실 경기북부 시군 모두에 관통하는 주제로서, 조선시대 경흥대로와 일제시대 경원선으로 이어졌던 한반도가 한국전쟁으로 끊어지고 단절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점에 주목해 과거 경기북부의 교통요지였던 의정부가 이를 회복하는 선도 기지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태조환궁설과 같은 잘못된 지명 유래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은 과거의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만남과 화해, 연결'의 키워드를 얼마든지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의정부시의 지역문화콘텐츠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57) 현재의 시흥시는 과거 인천 남부와 안산 북부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으로 조선시대 시흥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다.  
58) 충훈부는 안양시 만안구 충훈동의 옛 지명이다. 조선시대 이 일대 충훈부 둔전이 설치되어 지역 농민에게 이를 경작시키고 도조를 받아 충훈부를 운영했기 때문에 관청의 명칭을 따서 '충훈부'라 불리었으며, 지금도 행정동명으로 충훈동으로 쓰고 있다.

〈부표 1〉 내장원소관 양주군의정부둔전답조사정도성책(광무5년 11월 일)

자호	토지 규모	결수	지대역	작인
의정부	응자전 중전 3일경	24부	18두	한봉용
	중전 1일경	8부	6두	유백돌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이산이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동 인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허전봉
	중답 7두락	12부 6속	1석 8두	권명학
	중답 1석 2두락	39부 6속	4석 8두	김환득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허학이
	하전 일일경	6부	4두	동 인
	중답 11두락	19부 10속?	2석 4두	홍성무
	하전 2일경	12부	8두	손일봉
	중전 1일경	8부	6두	홍성무
	중전 1일경	8부	6두	이용문
	중전 반일경	4부	3두	이사유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배덕성
	하전 1일경	6부	4두	동 인
	중답 5두락	9부	1석	이금봉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탁성현
	상답 1두락	2부 3속	6두	김중성
	상답 5두락	11부 5속	1석 10두	이수흥
	상답 8두락	18부 4속	2석 8두	한봉용
	중답 5두락	9부	1석	차성어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김선녀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이사유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이정방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이유정
	상답 10두락	23부	3석	허학이
	상답 4두락	9부 2속	1석 4두	신군서
	상답 6두락	13부 8속	1석 16두	이산이
	상답 10두락	23부	3석	유백돌
	상답 8두락	18부 4속	2석 8두	이산이
	상답 3두락	6부 9속	18두	허학봉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한봉용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배덕성
	상답 5두락	11부 5속	1석 10두	이학용
	상답 3두락	6부 9속	18두	홍성무
	상답 3두락	6부 9속	18두	허학봉
	상답 15두락	34부 5속	4석 10두	한중갑
	상답 12두락	27부 6속	3석 12두	이화춘
	상답 4두락	9부 3속	1석 4두	이정만
상답 1석 1두락	48부 3속	6석 6두	김환득	
중답 1석 1두락	37부 8속	4석 4두	동 인	

자호	토지 규모	결수	지대액	작인
의정부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동 인
	중답 5두락	9부	1석	한봉용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배덕성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함양손
	상답 4두락	9부 2속	1석 4두	이산이
	상답 6두락	13부 8속	1석 16두	한백?
	상답 5두락	11부 5속	1석 10두	이정만
	상답 7두락	16부 1속	2석 2두	한봉용
	상답 9두락	20부 7속	2석 14두	이산이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김중성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곽복돌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이정만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정천경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이금봉
	중답 10두락	18부	2석	현수만
	하답 7두락	9부 1속	14두	김선녀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이정만
	상답 8두	18부 4속	2석 8두	함순용
	상답 7두락	16부 1속	2석 2두	동 인
	상답 10두락	23부	3석	최학신
	상답 6두락	23부 8속	1석 16두	이정만
	상답 7두락	16부 1속	2석 2두	최학신
	상답 16두락	36부 8속	4석 16두	김오득
	중답 2두락	5부 4속	12두	동 인
	중답 12두락	21부 6속	2석 8두	이경인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이용문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이화춘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홍정봉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이용문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이용성
	중답 5두락	9부	1석	김용원
	중답 1석 4두락	43부 1속	4석 16두	동 인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한봉용
	하답 1두락	1부 3속	2두	손성욱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함양손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이수근	
하전 1일경	1부 5속	1두	동 인	
독주천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손성욱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동 인
	중답 5두락	9부	1석	동 인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강순철
	중답 7두락	12부 6속	1석 8두	최학신
중답 10두락	18부	2석	정천경	

자호	토지 규모	결수	지대액	작인
독주천	중답 6두락	18부 8속	1석 4두	이용근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이용문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천만겸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박성탁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김수보
	중답 5두락	9부	1석	이승심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1두	천여장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박귀돌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이정삼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김명근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황덕근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함양손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박문여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함원근
하전 2일경	3부	2두	박주?	
전좌동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현균일
	하답 5두락	7속	1두	한명순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박순서
	하전 1일경	1부 5속	1두	지천실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동 인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오경천
	하전 1일경	1부 5속	1두	함원근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지천실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강씨동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임만보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김윤식
	하하답 5두락	5부	5두	지천실
	하전 반일경	3부	2두	동 인
	하답 5두락	구진	-	강씨동
호곡전평	하하답 4두락	4부	4두	김환득
	하하답 6두락	6부	6두	박성철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함원근
	하답 14두락	18부 2속	1석 8두	정천경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이윤여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함양손
	중답 10두락	18부	2석	정천경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임만보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이윤여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한인수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함원근
	하답 1석락	26부	2석	정천경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홍정봉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이정만

자호	토지 규모	결수	지대액	작인
호곡전평	하답 1두 5승락	2부	3두	진인보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동 인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김환득
	하전 3두락	구진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이윤여
	하답 5두락	구진		
	하답 7두락	9부 1속	14두	이정만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임만보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정천경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함양손
	하답 7두락	9부 1속	2석 16두	이윤여
	하답 4두락	구진		
	하답 4두락	구진		
	하답 5두락	구진		
의정부	하답 15두락	19부 5속	1석 10두	진인보
	중전 일일반경	12부	9두	최학신
	중전 일일반경	12부	9두	이정만
	중전 일일경	8부	6두	함순영
	중전 일일반경	12부	9두	이재만
	하전 일일경	6부	4두	강경실
	하전 2일경	12부	8두	강순철
	하전 반일경	3부	2두	황만철
	하전 일일경	6부	4두	문성삼
	하전 일일경	6부	4두	강경실
	하전 일일경	6부	도조 4두	이황용
	하전 일일경	6부	4두	손명화
	한전 일일경	6부	4두	이윤여
	중전반일경	4부	3두	손숙안
	하전 일일경	6부	4두	이경인
	하전이일경	12부	8두	천산옥
하전일일경	6부	4두	이춘경	
직곡	하전 반일경	3부	2두	김사범
	하답 6두락	구진		
	하하답 2두락	2부	도조 2두	강순철
호곡	하전 2일경	12부	8두	이정만
	하전 1일경	6부	4두	함치명
	하전 1일경	6부	4두	이화춘
	하전 반일경	3부	2두	강귀성
	하전 반일경	3부	2두	권태진
	하전 반일경	3부	2두	강순철
	하전 3일경	18부	12두	진인보
	하전 2일경	12부	8두	강순철
하답 7두락	도조 9부 1속	14두	진인보	

자호	토지 규모	결수	지대액	작인
호곡	하답 7두락	9부 1속	14두	한봉용
	하전 2일경	12부	8두	홍정봉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동 인
	하답 1석락	26부	2석	진인보
	중전 반일경	4부	3두	박시오
	중전 1식경	2부	1두 5승	이정봉
	중전 1식경	2부	1두 5승	천만겸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홍오공
	중답 7두락	12부 6속	1석 8두	동 인
	중전 3일경	24부	18두	이윤지(동임)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이봉선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천만겸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이정만
	하하답 4두락	4부	4두	동 인
	하답 3두락	구진		홍양손
	하하답 3두락	3부	3두	천만겸
	하전 반일경	3부	2두	동 인
	하하답 3두락	3부	3두	동 인
	하하답 2두 5승락	2부 5속	2두 5승	김오득
	하전 반일경	3부	2두	김환득
	중전 1식경	2부	1두 5승	김학봉
	하하답 18두락	18부	18두	김환득
	하전 2일경	12부	8두	동 인
하전 3식경	4부 5속	3두	이화춘	
빙고현	하답 8두락	10부 4속	16두락	이용문
회룡동	중전 1일경	8부	6두	김윤식(동임)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 지역특화콘텐츠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도시는 이야기로 만들어진다:왕의도시 의정부

코담미디어 회장 고 대 화

### I. 서론: 도시는 이야기다

#### 1. 세계 도시들의 이야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시겠습니까?

뉴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꿈의 도시'라는 수식어와 함께 브로드웨이의 불빛들, 월스트리트의 역동성이 그려지실 겁니다. 파리는 어떤가요? '사랑의 도시'라는 이름과 함께 센강변의 연인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로마는 '영원의 도시'로 2천 년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는 어떤 도시일까요?

#### 2. 이야기의 힘

저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성공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이야기의 깊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 사람들의 생활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시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사람들의 삶, 감정, 희로애락이 켜켜이 쌓인 '거대한 이야기책'과도 같습니다.

두바이를 보십시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이었던 곳이 '사막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세계의 미래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토는 천년의 시간을 품은 '전통의 이야기'로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왕의 도시 의정부"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의정부의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II. "왕의 도시 의정부" - 우리만의 이야기

### 1. 독보적 서사 자산의 발견

#### [왕과 왕의 만남 - 한국사 최고의 드라마]

의정부에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주역인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훗날 3대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

두 사람은 부자이지만, 정치적 갈등과 권력 다툼 속에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을 겪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의정부 땅에서 그들은 서로를 다시 마주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만남은 단순한 부자 간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화해는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요.

#### [회룡(回龍) - 서사의 완성]

회룡, '용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용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입니다. 떠났던 왕이 돌아온 곳, 권력이 회귀한 곳,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이 화해로, 분열이 통합으로 전환된 곳입니다.

용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최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 용이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며,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주는 순환과 재생의 의미입니다.

### [왜 이 이야기가 특별한가?]

저는 지난 35년간 드라마를 만들면서 '좋은 이야기'의 조건을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첫째, 보편적 감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과 화해는 인류 보편의 정서입니다.

둘째, 독창적 배경입니다. 조선 왕조라는 독특한 시공간, 왕자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의정부라는 구체적인 장소. 이 조합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셋째, 현재적 의미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는 절실합니다.

드라마 제작자로서 저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봐왔지만, 이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부럽지 않은,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감동적인 화해와 용서의 드라마가 바로 여기 의정부에 있습니다.

## 2.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필요성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야 할까요?

### [지역 고유성 확보]

대한민국 곳곳에는 다양한 역사 축제와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조와 태종의 화해 이야기는 오직 의정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역사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제할 수도, 다른 지역이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 확장성]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창의성을 더하면, 공연, 체험, 교육, 관광, 그리고 국제 문화 교류까지 무궁무진하게 확장됩니다.

### [경제적·문화적 파급력]

일본 가마쿠라는 무사 문화와 사무라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 사업은 수십 년간 지역의 문화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 사례의 출발점은 '고유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정부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 3. "왕의 도시" 이야기의 시대적 필요성

####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  
 죠. 이념의 대립은 일상을 파고들어 가족과 친구 사이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화해와 통합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의정부가 가진 '태조와 태종의 화해'라는 서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

21세기 글로벌 콘텐츠가 주목하는 것은 동양의 깊은 철학, 특히 '효(孝)'와 '충(忠)' 그리고 용서와 화합에 기반  
 한 한국적 정서입니다. '왕의 도시'는 이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인에게 전할 때, 권력과 갈등  
 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따뜻한 공감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잇는 보편적 울림으로, 동서양을 잇는 새로운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 Ⅲ. "왕의 도시 의정부" - 콘텐츠 확장

저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왕의 도시 의정부'의 이야기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문화산업 전반에 걸  
 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과 확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 왜 콘텐츠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가?

####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여러분,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더 이상 공장의 수나 인구의 규모가 아닙니다. 바로 '스토리텔링 파워'와 '문화적 자산'입니다.  
 단 하나의 이야기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인의 발길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애너하임에 가져온 변화를 아십니까?

인구 35만의 평범한 도시가 연간 2,4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미키마우스 하나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효과를 아십니까?

쇠락한 공업도시가 단 하나의 문화시설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빌바오 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까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마르세유의 유럽문화수도 선정이 가져온 변화를 아십니까?

마르세유는 과거 산업쇠퇴와 범죄와 빈곤의 부정적 이미지로 도시가 쇠퇴하고 있었으나, 2013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선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도시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를 진행하며 문화와 예술의 글로벌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의정부에는 디즈니보다 깊은 역사가, 빌바오보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문화수도 선정 후 도시 브랜드를 재창출한 마르세유처럼, 의정부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재창출하고 의정부만의 고유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며 '문화도시 의정부'로 재탄생하며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 2. 콘텐츠 제작 선점의 중요성 –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첫째, 도시 정체성 확립의 골든타임입니다.

의정부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GTX-C 개통, 신도시 개발. 의정부의 하드웨어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즉 도시의 영혼과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드웨어만 있는 도시는 껍데기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스토리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각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퇴계 이황', 전주는 '조선왕조', 공주는 '백제문화'로 나서고 있습니다.

의정부가 '왕의 도시' 포지션을 선점하지 못하면,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묻힐 수 있습니다

셋째, AI 시대 오리지널 스토리의 희소가치가 높아집니다.

Chat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가 스토리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대.

그러나 AI가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역사', '진짜 장소', '진짜 감동'입니다.

의정부의 600년 역사는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의 보고입니다.

넷째, 글로벌 K-콘텐츠 도약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는 지금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황금기입니다.

동시에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차별화된 로컬 스토리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에 한국만의 이야기로 도약할 최적의 순간입니다.

### 3. 콘텐츠 확장의 무한한 가능성

'왕의 도시 의정부' 하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요?

드라마 한 편이 웹툰이 되고, 웹툰이 게임이 되고, 게임이 테마파크가 됩니다. 뮤지컬이 되고, 축제가 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힘입니다.

#### [글로벌 성공 사례로 본 확장 가능성]

마블의 유니버스를 보십시오.

마블 유니버스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영화, 드라마, 상품 등으로 폭넓게 확장되며 전 세계적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지로 활용된 뉴욕,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는 마블 팬들의 방문지로 급부상하며 관광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마블 콘텐츠가 만든 독특한 세계관과 캐릭터들은 도시의 이미지와 결합해 팬들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체험 관광'을 촉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촬영지가 아닌 '문화 관광 명소'로서 도시의 경제적 가치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리포터를 보십시오.

책 한 권으로 시작해 영화, 테마파크, 뮤지컬, 게임으로 확장되어 영국 경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로 간 열차를 타는 관문,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9와 3/4 승강장은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은 어떤가요?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은 지역 마스코트를 넘어 전 세계적 캐릭터로 성장하며 구마모토 현의 인지도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한 캐릭터 하나로 인구 180만의 작은 지역이 세계적 명소가 된 것입니다.

#### [의정부만의 독보적 잠재력]

의정부의 '왕의 도시' 이야기도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픽션이 아닌 역사이고, 외국이 아닌 우리 땅! 대한민국 의정부의 이야기입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도 상상 속 인물이지만, 태조와 태종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는 판타지이지만, 회룡사는 지금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실제 공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진정성은 어떤 픽션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 IV. 결론: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는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뉴욕이 자유의 여신상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을 뉴욕으로 이끕니다. 파리가 에펠탑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낭만의 도시'라는 이야기가 연인들의 발걸음을 파리로 향하게 합니다.

이제 의정부가 쓸 차례입니다. '왕의 도시'라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600년 전, 태조와 태종이 이곳에서 화해했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을 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는 갈등과 분열로 아픕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가 절실합니다. 의정부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왕의 도시 의정부'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마케팅이 아닙니다.

역사를 현재로 불러오고, 과거를 미래로 이어주는 시대정신입니다.

음악으로, 문학으로, 영상으로, 예술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으로 365일 살아 숨 쉬는 이야기입니다.

의정부, 왕들이 선택한 도시. 이제는 시민이 만드는 왕의 도시.

여러분, 의정부의 도시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이 자리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2025년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해, 의정부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왕의 도시라는 꿈을 품고, 시민들이 함께 써내려간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갑시다.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왕의 도시를.

함께 전파합시다. 세계가 주목하는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지역역사문화를 품은 특화콘텐츠  
지역정체성을 깨우다

## 토론

### ① 역사문화자원의 지역적 적용과 콘텐츠 실현 가능성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 ② 지역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전략

송낙길 (경민대학교 교수)

### ③ 문화자원 콘텐츠화와 지역정체성 실현의 현실적 접근

유건식 ((前)KBS공영미디어연구소장)

### ④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과 쟁점

안이수 (신한대학교 교수)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 역사 문화 자원의 지역적 적용과 콘텐츠 실현 가능성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성 동 규**

### 1. 지역의 위기, 지역문화의 위기

#### 1) 인구 규모 변화

-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약 5,18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약 10만 명 이상 감소세. (2025년 현재 약 5,100만 명 수준이며, 2035년에는 약 4,800만 명, 2070년에는 약 3,800만 명으로 현재보다 25% 이상 감소 예상. 출산율은 24년 0.68명으로 OECD 평균(1.5~1.6명)의 절반 수준.)

#### 2) 지역 인구소멸의 가속화

- 대한민국 지역 인구 소멸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보다 훨씬 심각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중임. 2024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 지역.
-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지역 경제나 병원 등 인프라의 붕괴를 넘어 지역문화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
- 의정부의 경우 1966년 약 74,600명이던 인구가, 2005년 약 398,900명에서 현재는 46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자족 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를 다양화하여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왕의 도시 의정부”는 의정부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문화는 소프트 파워 강화의 최고 무기이기 때문.

## 2. K-콘텐츠가 지역문화에 가져올 나비효과

### 1) 성공사례

#### ◆ 킹덤(2019)

- 전세계 190여개국에서 27개국 언어의 자막 제작 및 12개국 언어로 더빙 제공
- 기존 한국 드라마가 로맨스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한 것과는 달리 전통적인 요소가 주가 되는 사극으로 전세계적 성공을 거둔 최초 사례 (뉴욕타임스가 ‘킹덤’을 2019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TOP 10에 선정)
- “킹덤은 한국형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 ◆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2025)

- 해외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 즉,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외국창작자, 소니 픽처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협업해 만든 미국 애니메이션
- K-팝과 한국적 요소를 결합해 ‘해외에서 만든 한국적 콘텐츠’를 구현하여 한국문화의 확장성과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음 (케데헌의 성공과 ㈜한국식도산업의 매출 증가)
- 특히 ‘케데헌’의 성공사례는 수출의존도와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으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렸을 때 발생하는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음.
-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사례처럼 ‘케데헌’ 역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이 넷플릭스와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에게 있어 어떠한 부가가치도 갖지 못하는 만큼 IP 확보에 대한 절대적 중요성이 확인됨.

### 3. 문화강국 대한민국 속의 의정부의 문화전략

1)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의정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콘텐츠화하고,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적 마인드로 이들 콘텐츠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결합해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 로컬과 로컬 간의 융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글로벌과 로컬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성이 세계성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

2) 의정부가 추구하는 글로컬은 단순히 '왕의 도시 의정부'의 역사적·지리적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재 의정부가 가진 고유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연결시켜야 함. 이때 지역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충(忠)과 효(孝) 등 보편적인 정서와 연결되거나, 보편적 주제에 지역적 특색을 강조한다면 차별성과 보편성을 모두 확보하여 다양성과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임. 더불어 지역민들의 삶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홍보 및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민과 같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

3) '왕의 도시' 이후에도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중장기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며, AI나 버추얼 휴먼 등의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확보하고 고품질 저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또한 운영자들의 신기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자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함.

4)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홍보와 유통 전략이 필요. 즉,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활용해야 하며, 이들과의 상생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함. 지역 콘텐츠의 알고리즘 노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유튜브나 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정부의 콘텐츠(숏폼 포함)를 적극 유통시키고, 지역방송사나 유료방송 등 타 플랫폼과의 지속적인 연계 전략도 필요.

5)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의정부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콘텐츠 전용 예산과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이재명 정부가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한 '문화강국' 실현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예산확보 등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함.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 지역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전략

- 문화·예술·체육·복지의 융복합도시를 상상하며 -

경민대학교 교수 송 낙 길

### 1. 들어가며

오늘날 지역문화정책은 단순한 예술 활동이나 전통 보존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정체성, 지역의 경제와 창의 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지역의 행정·교통·교육 허브로서 역사, 문화, 예술, 체육, 음식 그리고 국제적 경험이 중첩된 도시이다. 회룡사와 같은 전통 사찰, 의정부 문화역 이음과 같은 복합문화공간, 실내빙상경기장과 컬링, 미군시설과 관련한 국제적 경험과 의정부 부대 찌개 등은 의정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이다. 최근 영어, 미술, 음악, 과학, 정보도서관 등 특화된 전문도서관 건립과 운영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콘텐츠들을 기반으로 의정부시가 어떻게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고,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인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안한다.

## 2. 의정부시의 주요 문화콘텐츠 현황

### (1) 특화도서관과 다양한 문화 공간

의정부시는 영어, 미술, 음악, 과학, 정보 등 분야별 전문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자료 열람 기능을 넘어 창의적 문화 콘텐츠 기획의 기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 가장 중심공간에 해당하는 의정부역에는 “일상이 여행이 되고, 문화가 되는 공간”을 지향하는 ‘의정부문화역 이음’이 있다. 예술가와 시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플랫폼으로서 전시, 공연, 체험, 강연이 연계되어 일상에서 문화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 기능을 하고 있다. 의정부문화역 이음은 철도역을 재생한 복합문화플랫폼으로서 전시·공연·시민참여의 허브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군사유산·음식문화 아카이브 전시의 상설 거점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 (2)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역사문화와 문화축제

의정부 지명유래의 근원인 회룡사는 의정부의 대표적 전통사찰로서 역사적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기대한다. 천년고찰로서 전통문화 프로그램(템플스테이형 평화명상, 불교문화예술)과 도시역사·기억을 잇는 장소기억(place memory)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는 매년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회룡문화제, 천상병예술제, 민락맥주축제, ECO 마을축제, 배트남-대한민국 문화교류축제” 등 전통과 현대, 자연과 시민참여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사진산업 육성조례, 인문정신문화 진흥조례, 청년예술 지원조례, 지명정체성 조례” 등 문화정책기반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스포츠와 문화의 융합: 빙상·컬링 콘텐츠

의정부시는 2003년 의정부 실내빙상장 개관, 실내빙상경기장을 보유한 경기북부의 스포츠도시이다. 2025년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2025 한국컬링선수권대회(국가대표 선발전), 경기도 컬링연맹회장배 경기도 컬링대회” 등 비인기종목인 컬링대회를 진행하였다. 의정부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컬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도 기여를 하였다. 컬링이라는 비주류 스포츠를 문화 콘텐츠화하고, 지역 청소년 대상 컬링학교, 컬링 전시회, 관람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면,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대표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내빙상경

기장과 컬링동계스포츠 훈련 및 생활체육의 거점으로 스포츠 관광과 음식·문화 코스를 결합한 복합 방문경험 설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국제적 자원과 고유한 음식문화

의정부시 지역에는 '캠프 스탠리'를 비롯하여 8개 주한미군 주둔시설이 있었으며, 이미 2007~2022년 7곳이 반환되었다, 이 가운데 4곳은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며, 이중 3곳에 바이오헬스, 디지털콘텐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분야 기업을 유치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시민주거여건 개선, 산업기반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의정부 부대찌개는 한국 현대사의 흔적과 음식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콘텐츠로, 이미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군부대는 단순한 주둔지를 넘어 한미 교류 및 문화 융합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공공, 문화, 상업, 등 복합개발과 아울러 평화와 기억공원 조성 등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 3.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

#### (1) 거버넌스(Governance) 기반 협력 모델 구축

지자체-문화재단-도서관-예술가-학교-체육단체-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공동의 문화 비전과 기획과제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의정부 문화주간'을 운영하고, 도서관 전시, 문화역 공연, 컬링체험 이벤트 등을 통합 기획하는 크로스 플랫폼형 축제 모델 등을 제안한다.

#### (2) 미군주둔시설의 문화공간으로의 재생

군사유산의 문화·관광 전환과 음식문화 브랜딩, 군사유산의 평화·기억 관광(peace & memory tourism) 군사시설·전쟁유산 등 갈등의 상처에서 평화교육·기억콘텐츠로 전환하는 전략은 이미 베를린 템펠호프 공항 재생, 요코스카 군항 투어 등 세계 각 도시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반적 경향이다. 의정부 미군기지 유산도 장소성과 기억을 보존하면서 공공문화공간으로의 재생을 제안한다.

### (3) 세대·계층 맞춤형 문화콘텐츠 개발

영어도서관,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등 다양한 전문화된 도서관을 거점으로 유아·청소년 위한 영어도서관 기반 '다문화 북페어', 노년층 위한 실버 클래식 음악회(음악도서관 중심), 가족 대상 컬링 체험 축제, 장애청소년 대상 과학도서관 연계 창의놀이교실 등 문화와 교육·복지가 통합된 '통합문화복지 콘텐츠' 개발과 운용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제안한다

### (4) 학교 및 대학과의 연계 체계 강화

의정부 지역에는 두 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 고교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 문화기획 실습', '문화복지 인턴십', '컬링콘텐츠 정책제안 캠프' 등을 운영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문화리더를 양성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4.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전략화 방향

### (1) 주제별 도서관 중심 콘텐츠 정례화

영어도서관-다문화 체험주간, 미술도서관-아동창의미술축제, 과학도서관-청소년 진로탐색 과학여행, 음악도서관-청년 버스킹 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별 문화주간을 운영하고, 연계 기관과 자원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용한다.

### (2) 스포츠문화 콘텐츠 개발

실내빙상장과 컬링을 활용하여 '컬링과 빙상의 도시 의정부'라는 브랜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컬링대회와 함께 컬링 전시, 체험부스, 역사 소개 등 복합 문화행사 개최, 청소년 빙상진로캠프와 도서관 진로도서 큐레이션 연계, 빙상선수 출신 시민과의 북토크 '스포츠와 삶' 등 이러한 기획은 지역체육과 예술, 교육이 연결된 융합형 콘텐츠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3) 디지털 문화자산화와 플랫폼 구축

지역 자원과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의정부 아카이브 플랫폼' '메타버스 문화도서관' '온라인 컬링 해설 콘텐츠' 등으로 확장하고, 특히 Z세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 참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4) 시민문화기획자 양성과 생활문화지원 확대

시민 주도로 문화기획, 프로그램 기획, 커뮤니티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문화리더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생활문화동아리, 청년예술인, 시니어문화기획자를 위한 창작 지원을 지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5) 지역문화와 복지를 결합하는 전략

##### (5-1) 특화도서관 + 문화복지 프로그램

의정부의 영어, 미술, 음악, 과학, 정보 도서관은 특정 계층이나 세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다. “문화재생 + 정서지원 + 학습권 보장”이 통합된 복합문화복지형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제언한다.

도서관 유형	결합가능한 복지 콘텐츠	대상
미술도서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그림책 + 아트테라피’	아동복지
음악도서관	‘클래식과 함께하는 기억의 정원’ 회상 음악치료	노인복지
영어도서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English Storytelling Café’	다문화 가정
과학도서관	위기가정 청소년과 과학 창작 동아리	청소년 복지

##### (5-2) 컬링·빙상 콘텐츠 + 통합 돌봄 복지 프로그램

컬링장과 실내빙상경기장을 단순 체육공간이 아닌 복지 연계형 여가·회복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컬링 힐링데이-지체장애인 대상 휠체어 컬링 체험 + 전문강사 레크리에이션, 실버빙상교실-고령자 낙상예방 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한 빙상 걷기교실, 가족돌봄 컬링캠프-발달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컬링놀이와 가족상담” 등 스포츠 콘텐츠를 정서지지, 가족기능 회복, 여가복지로 확장하는 창의적 전략이 필요하다.

##### (5-3)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복지 버스’

의정부시의 이동형 도서관 또는 복지시설 차량을 활용해, 문화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공연, 미술체험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노인요양원 찾아가는 미술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대상 과학도서관 체험(차량) 운영’, ‘장애청소년 대상 음악도서관 미니콘서트’ 등은 문화 향유권 보장이자 곧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4) 시민 문화기획자와 복지실천가의 협업 프로젝트**

‘문화복지 네트워크팀’ 구성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사 + 문화예술 기획자 +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복지 현장(노인복지관, 장애인기관, 마을복지센터 등)에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기억을 담은 마을사진전’ (노인 사진 수업 + 마을 전시), ‘청년 정신건강 북콘서트’(정신건강복지센터 + 도서관 연계), ‘우리동네 컬링 페스타’(장애인시설+주민참여 축제) 등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내 대학과 연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략 영역	핵심 내용	비고
도서관 + 복지	도서관별 특성에 따른 계층 맞춤 복지 프로그램	
스포츠 + 복지	컬링 · 빙상 콘텐츠를 통합돌봄과 여가복지로 확장	
찾아가는 서비스	문화소외지역 대상 이동형 문화복지 실현	
협업 플랫폼 구축	시민 · 복지사 · 예술가의 공동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5. 나가며**

의정부시는 현재 다채로운 문화자원과 정책기반, 문화 · 체육 인프라를 고르게 보유한 도시에 해당한다. 주한미군 주둔시설의 역사적 유산과 부대찌개라는 고유 음식문화를 ‘평화 · 기억 · 교류’의 관점에서 재결합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국제적 확장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컬링과 빙상 등 지역 특화 스포츠 콘텐츠와 특화된 전문도서관 등은 의정부시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주요한 자산이다.

의정부시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도시로서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잠재력도 크다. 문화 거버넌스 구축 등 체계적인 협력구조와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고, 세대가 연결되며, 도시가 성장하는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한다면,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 조정, 시민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구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금번 정책 페스타를 계기로, 전통과 현대, 지역과 국제, 문화와 체육, 음식과 학습을 결합한 종합적 문화정책을 기대하며, 문화와 체육, 복지와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 문화자원의 콘텐츠화와 지역정체성 실현의 현실적 접근

유건식 (前)KBS공영미디어연구소장) 유 건 식

### 1. 의정부 문화자원<sup>1)</sup>

구분	사례
유형 문화자원	망월사, 회룡사, 노강서원, 의정부성당, 박세당 사랑채, 신숙주선생묘, 송산사지, 정문부장군묘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예술의전당, 제일시장, 천문대, 떡만들기 체험관, 컬링경기장, 견고싶은도시국
무형 문화자원	회룡(태조와 태종의 만남) 정휘옹주와 유정량, 천보산 축석령, 유념의 꿈 이야기, 의순공주와 정주당터, 여말 삼현, 신용개의 풍류, 다섯처녀 합동혼례 천상병예술제, 회룡문화제, 음악극축제, 블랙뮤직페스티벌
자연생태 문화자원	수락산 도정봉, 소풍길(8), 견고 싶은 길(7), 둘레길
사회적 문화자원	의돌이, 랑이, 의정부 하루여행 & 시간여행(미술, 컬링, 이색도서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1) 문화자원이란 한 공동체가 축적해 온 모든 문화적 자산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넓게 일컫는 용어로 의정부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의미함.

## 2.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 2.1. 회룡

- 기존: 회룡문화제(1986~ ), <걸으며 음미하는 마을이야기-회룡골>(의정부문화원 유튜브, 유호명 역사문화 연구자, 2025), 창작인형극 <의정부와 함흥차사>(회룡문화제, 2022), 무용 <태조 이성계>(의정부시립무용단, 2017), 『의정부 문화유산이야기』(의정부문화원, 2007)
- 트랜스미디어 개발: 회룡 스토리를 활용한 다큐멘터리, 웹툰, 뮤지컬, 영화, 드라마(OTT), 숏폼 드라마
- KBS 역사스페셜: <태조와 태종은 어떻게 화해했나?> 주제로 KBS 대하드라마에서 태조와 태종을 다룰 경우 추진하거나 별도 추진
- \* 방송사, OTT 플랫폼, 출판사, 게임사, 공연기획사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주체들과의 협력 필요
- AI 활용을 포함한 UGC(User Generated Content)/UCC 콘테스트 개최

### 2.2. 의정부 내 스토리 콘텐츠화

- ‘천보산 축석령’은 효심 깊은 오백주의 이야기로 애니메이션으로 개발
- ‘다섯처녀 합동혼례’는 연극으로 개발

### 2.3. 의정부 배경 콘텐츠 제작

- 기존: <그 해 우리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스타트업> 등이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성당 등에서 촬영
- 개발: 예능, 드라마 장소 협찬을 위해 예능, 드라마 피디/작가 초청 워크숍 개최
- \* <굿닥터> 전주시(향교/한옥마을) 사례
- 효과: 콘텐츠 노출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2.4.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 의돌이와 량이 이모티콘

## 2.5. 천상병 콘텐츠 확장

- 2004년 안면도로 옮겨 간 천상병 생가 2) 3) 4)가 복원

## 2.6. SNS 활성화

- 유튜브: 구독자 14,300명, 최고 조회수 141,000(2분으로 끝내는 여권발급의 모든 것), 페이스북 팔로워 82,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9,000명
-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틱톡 추가
- 셀럽과 콜라보레이션 확대(예. 선과 함께 뛰는 의정부둘레길 49.9km) vs 맨발걷기<sup>5)</sup>

## 2.7. 의정부 하루여행 & 시간여행

- 현재: 2년차로 9.17, 9.24, 10.15, 10.22, 10.24 예정<sup>6)</sup>
- 주말에도 운영 확대

# 3. 지역정체성 실현

## 3.1. 내 삶을 바꾸는 도시

-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일치되는 실행 계획 필요

## 3.2. 회룡을 통한 의정부시의 정체성 리브랜딩

- 군사(부대찌개) 도시에서 정체성의 변신 필요
- 리브랜딩: '행복 의정부' → '왕의 도시 의정부', '화해의 도시 의정부'

2) <https://www.kyeongin.com/article/1563852>

3) <https://blog.naver.com/ichmount/222387263614>

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98300](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98300)

5) <https://www.bukbuisue.com/1675>

6) [https://www.themecamp.co.kr/event/plan\\_view?eventPlanSeq=31&page=1](https://www.themecamp.co.kr/event/plan_view?eventPlanSeq=31&page=1)

- 화해는 최근 국내, 남북, 글로벌에서 가장 필요한 키워드임
- 필요 전략: 메인 슬로건, 디지털 플랫폼, 비주얼 아이덴티티
- 도시 공간의 스토리텔링화: 회룡역 일대 - '왕의 귀환 거리', 의정부시청 앞- '화해의 광장'

### 3.3. 바둑의 도시 브랜딩

- 국내 첫 바둑 전용경기장 완공 예정<sup>7)</sup> 끝.

---

7)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5042251060>

2025년 제3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지역역사 문화포럼>

##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과 쟁점

신한대학교 교수 안 이 수

### 지역정체성 구현과 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

현대 사회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이 고유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중심적 개발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문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부 방문객을 유인하며,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역사, 예술, 자연 등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 및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화자원 활용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성공 사례의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원주민 및 상인들의 비자발적 이주, 관광객과 주민 간의 충돌, 그리고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문화적 진정성 훼손과 같은 심각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지역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에 본 토론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정체성과 문화자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핵심적인 갈등과 정책적 한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 자산화 전략, 그리고 문화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자원 활용이 단순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지역정체성은 실제 지역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지역정체성은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분 짓는 고유한 자연적, 문화적 특성 및 사람들의 특징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집단적 자의식에 가깝다. 이는 개인적 정체성(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과 사회적 정체성(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개념이다. 문화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지역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사실이나 부존자원 등은 정체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흥미롭게도,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관광지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 문화자원 활용이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기제임을 뒷받침한다.

이는 지역정체성이 단순한 문화적 담론을 넘어, 실제 지역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 문화자원의 유형과 역할

문화는 인류학적으로 학습되고 사회적으로 전승된 행위의 총체로 정의되며, 한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의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자원은 인간의 관광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포괄한다. 유형적으로는 전통 유산(의식주, 종교, 산업유산)이나 자연경관 등이 있으며, 무형적으로는 이야기, 풍습, 인물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를 관광객에게 흥미로운 체험으로 제공하거나 장소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적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지역정체성과 문화자원 활용의 관계

지역정체성은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해 구체화되고 강화되며, 문화자원은 지역정체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발현한다. 이는 단순히 문화재를 전시하거나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자원은 단순한 경제적 '상품'을 넘어, 지역 내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기존의 갈등 요소를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포천 '수목원가는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제조업, 예술,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이 혼재되어 갈등을 빚었던 이 지역은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문화의 거리 가꾸기'를 조직하고, '문화예술과 지역 이슈를 연결'하며 지역민 간의 연대를 강화했다. 이러한 시도는 문화자원 활용의 주체가 경제적 이윤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체적인 가치 부여'와 '연대'에 초점을 맞출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문화가 결과물이 아닌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화도시 정책의 방향성에도 일치한다.

## 문화자원 활용의 주요 방향: 성공 사례를 통한 분석

### 1. 장소 마케팅 및 도시재생 모델

문화자원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 및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쇠퇴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효과적인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통영의 동피랑 마을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 낙후된 달동네였던 이 마을은 2007년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진행한 벽화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예술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폐가들은 카페, 문화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재탄생하여 지역 상권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성공한 로컬 관광 모델이다. 지자체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아래 한옥 보존과 관광 개발을 병행하고, 공공 지원과 청년 창업 유치 등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발전했다. 한옥 숙박업, 한복 체험, 전통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 2.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산업유산 활용

문화자원 활용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이를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울산의 장생포는 과거 포경산업의 중심지였던 산업유산을 '고래문화마을'로 재해석하여 관광 명소로 부활시켰으며, 포항은 '철강산업 도시'라는 기존의 정체성을 '철학(鐵學) 문화도시'로 확장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쇠퇴한 산업의 흔적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자연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생태관광 역시 중요한 방향이다. 스웨덴의 요크모크는 북극권 원주민 사미족의 문화와 자연을 조화시킨 생태관광 모델로, 단순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오로라 관찰, 순록 방목 체험 등 '지속가능한 경험 가치'를 강조하며 가치를 중시하는 여행객을 확보했다. 일본의 사이타마현 한노시 또한 지역 여관, 비영리단체(NPO)와 연계하여 폐교를 숙박시설로 정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했다.

## 3. 주민 주도형 공동체 기반 사업

성공적인 문화자원 활용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성에 있다.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주민 주도적 모델은 공모 사업 참여 모임과 구성원 수가 급증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내재적 가치를 창출했다. 성공의 척도가 외형적 성과(관광객 수, 경제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전주 한옥마을은 방문객 수천만 명을 돌파하며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로 인해 과도한 상업화와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반면 수원과 같은 사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규모는 작을지라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강화라는 내재적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문화자원 활용의 성과를 단순히 경제적 지표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건강성, 주민의 만족도,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차원적인 지표로 측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 문화자원 활용의 주요 쟁점 및 갈등 분석

### 1.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화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종종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주 한옥마

을처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있던 원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지역에서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과도한 상업화는 지역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논란을 야기한다.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새로 유입된 상인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규모, 현금 거래 위주의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게 되었고, 이는 한옥마을의 전통적 정체성을 퇴색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주시는 이에 대응하여 한옥 증축 금지, 한식 외 음식점 영업허가 제한 등의 강도 높은 규제를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재산권 침해 반발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문화적 가치 보존과 경제적 자유 사이의 첨예한 충돌을 보여준다.

## 2. 주민 정주권과 관광객 편의의 충돌

문화자원 활용 사업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갈등은 '관광지'와 '거주지'라는 장소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에서 발생한다. 통영의 동피랑 마을, 서울의 이화동 벽화마을과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객 증가가 주민들의 정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소음,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재생사업 반대"라는 대자보를 내걸거나, 심지어 벽화를 훼손하는 등 극단적인 저항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관광 공해의 문제를 넘어, 장소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주민에게 마을은 삶의 터전이자 '사는 곳'이지만, 관광객에게는 일회성 소비의 대상인 '보는 곳'이다. 이 근본적인 정체성 충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책이 일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만 중점을 두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이는 문화자원 활용의 성과를 측정할 때 관광객 만족도만큼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핵심적인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 3. 정책 및 실행 단계의 한계

문화자원 활용 정책은 여전히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첫째, '시설만 지으면 문화 소외가 해결된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문화시설 인프라가 양적으로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 질적인 콘텐츠가 부족하여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는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적인 공급과 지역 간 협력 부재의 한계와 맞물려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둘째,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재원과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으며,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갖춘 문화 분야 인력의 부재는 지역 문화사업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 4. 문화적 다양성 훼손 및 편향적 활용

문화자원 활용의 실패는 단순한 정책적 한계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특정 자원에 편향된 활용에서도 비롯된다. 산업유산이나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소유주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국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서울 풍납토성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부 주민들에게 풍납토성은 보존의 대상이 아닌 '쓸모없는 흙덩어리'로 인식되어, 발굴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훼손되는 등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사이의 첨예한 충돌을 야기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자원의 가치가 학문적 보존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일상에 어떻게 통합되고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결국, 문화자원을 협소한 관광 개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인식의 편향은 지역의 총체적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지속가능한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제언

#### 1.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의 강화

지속가능한 문화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문화재단, 민간, 그리고 지역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을 통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역문화재단은 전문가 양성, 데이터 구축, 사업 조정 및 연계 등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문화가 있는 날' 마케팅 지원 사업과 같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문화 향유 여건을 조성하는 사례는 긍정적 모델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은 사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의 주체로서 기획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한다.

#### 2. 지역 자산화 전략과 공동체 운영 모델 도입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지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임대료 상승에 대한 일시적 규제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지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자산화' 전략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커뮤니티 개발공사(CDC)' 모델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장기적 안목을 가진 지역 기반의 조직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외부 투자를 중개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소속감과 네트워크 같은 비물리적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 3. 문화유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문화자원 활용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의 '문화적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에 달려 있다. 이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보는 곳'과 '사는 곳'을 구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된 문화유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유산 교육의 필요성은 높으나 실제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집'을 참고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적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은 역사적 장소의 진정성과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건축물을 단순한 볼거리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역사적 의미와 장소의 가치를 되새기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 '숫 주인이 살고 있어요'와 같은 캠페인 또한 관광객들에게 장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나가며

본 토론문은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한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성과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문화자원 활용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확인했다. 특히, 예술과의 결합, 산업유산의 재해석, 그리고 주민 주도적 공동체 기반 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주민 정주권 침해, 그리고 정책적 한계라는 심각한 쟁점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자원 활용이 단순히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누가,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지역의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주민의 삶을 관광의 배경으로만 인식하는 편향된 시각은 결국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공동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정체성 구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를 지양하고, 주민의 삶과 만족도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그리고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자산화 전략과,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 및 캠페인이 병행되어야만 문화자원 활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는 첫째, 문화자원 활용 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지표 외에 사회적 가치(주민 만족도, 공동체 회복 등)를 포함한 다차원적 지표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민의 자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자원(무형, 근대 산업유산 등)의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대중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 모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
2.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940>
3. 최명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 2017,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4. 김보미 외,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이화동 벽화마을에 관한 연구, J Korean Inst Landsc Archit 2019; 47(3):1-11
5. 서영임,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 진정성 만들기, 奎北學研究 2022;7: 171-202
6. 최재현, 세계화 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 의미 고찰, 대한지리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59-160
7.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정체성의 문제와 전망 -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8. 김형준, 지역정체성 확립요인과 지역이미지 제고와의 관련성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2017;19(2):117-133
9. 이은혜 외, 장소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2013;11(3):20-29
10. 문화체육관광부,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21
11. 조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2.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세계적 '문화도시' 주민이 직접 키운다, 2020
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2/201603020139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2/2016030201394.html)
14.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77424.html](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677424.html)
15. <https://kids.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93>
16. <https://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69>
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56.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56.html)
18. 이순자, 지역행복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2015,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19. 정보람, 지방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인천문화통신 3.0
20. (사)한국건축역사학회,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2006 문화재청
21. 법무법인 더함,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제도 조사연구 보고서, 2021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2. 나보리 외, 지역문화거버넌스 활성화에 있어 관계적 지역문화자원의 역할: 서울시 자치구 문화 분권형 사업참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J. Cult. Policy 2022; 36(2):5-32
23. [https://www.arko.or.kr/board/view/4057?bid=&cid=527642&sf\\_icon\\_category](https://www.arko.or.kr/board/view/4057?bid=&cid=527642&sf_icon_category)
24. <https://rcda.or.kr/home/kor/contents.do?menuCode=33>
25. 국가유산청, 학교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집, 2023
26. <http://www.mokpo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3>
27. 이정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9;20(10):187-194
28.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97\\_04/19970404.htm](https://www.arko.or.kr/zine/artspaper97_04/19970404.htm)
29. 박태선 외,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2015,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064>
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대응 학교 프로젝트 우수사례집, 2025